철도·공항 국비 7천786억원… 전국 2시간대 연결 순항

호남고속철·전라선·경전선 등 서남권 철도망 확충 속도

무안·여수공항 안전시설 확충·흑산공항 건설 추진 기반 마련

전라남도는 2026년도 철도·공항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국비 예산으로 7천786억 원을 확보해 전남과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과 공항 안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 규모는 전년보다 140% 증가한 수준이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5천700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준공이 가시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노반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후속 공정을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국 최초로 공항과 KTX가 직접 연결되는 무안국제공항역이 신설돼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는 1천722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천 도심 구간 지하화 결정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번 예산 반영은 정부가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정부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이 편성되며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2024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수도권 이동 시간이 단축돼 호남권 광역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세기 역사를 간직한 목포역 노후 역사 개량사업에도 2026년 착공을 위한 185억 원이 반영됐다. 대합실과 승강장 등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해 목포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개통한 목포~보성선과 관련해 확정 측량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사후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 30억 원이 반영돼 개통 이후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공항 분야에서는 무안·여수공항 조류 탐지레이더 구축 예산 81억 원과 종단안전구역(240m) 확보에 14억 원이 반영돼 공항 안전성 강화가 본격화된다. 또한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비 48억 원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6년 확정 예정인 철도·공항 분야 국가계획에 대규모 신규 사업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호남고속철도·경전선 연결선 등 8건, 41조 4천627억 원)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광주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 무안·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흑산공항 건설 등 6건, 8천211억 원)으로, 총 14건 42조 2천888억 원 규모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전남 철도·공항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었다"며 "개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계획 반영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양 기업, 전남 중소기업 대상 3개 석권 '쾌거'

대상 ㈜에이비알, 금상 아르고마린토탈㈜, 은상 ㈜삼우에코

광양시는 관내 기업 ㈜에이비알, 아르고마린토탈㈜, ㈜삼우에코가 「2025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에서 각각 대상·금상·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하는 제도로, 기업의 건실도, 사업성과, 기술역량,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라남도 내에서 총 4개 기업(대상·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광양시가 전통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친환경·기술혁신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온 정책 기조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을 수상한 ㈜에이비알은 파쇄·분쇄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배터리 직접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해당 기술은 CO_2 저감과 황산 미사용이 가능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이어가 지역 기반 신성장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아르고마린토탈㈜는 1997년 설립 이후 광양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선사 및 화주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검수·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성장,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광양항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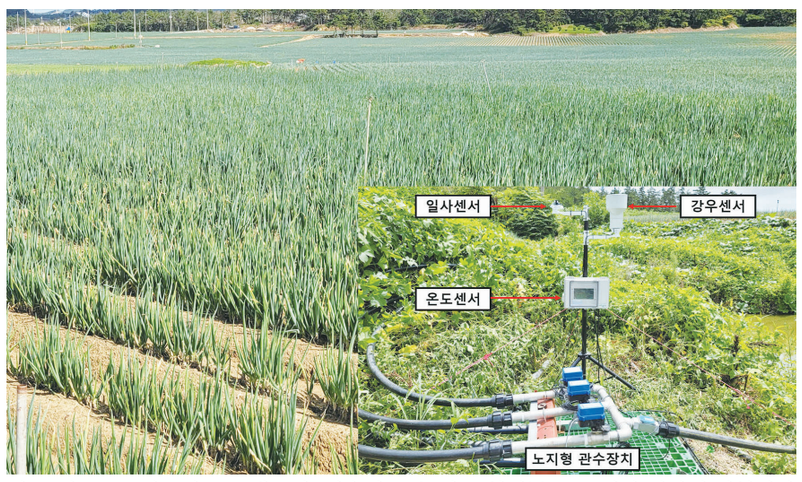
은상을 수상한 ㈜삼우에코는 1995년 설립 이후 제철 자동화 설비 분야의 핵심기술과 품질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철강사에 설비를 공급하며 성장해 온 지역 강소기업이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AA등급 획득, 산업포장 수훈 등 우수한 성과와 함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술력과 윤리경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수상의 영예와 함께 전라남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운영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증액), 이자 지원(0.5%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농기원, 특허기술 민간 이전으로 상용화 가속

스마트관수 등 보급 확대… 농가 노동·경영비 부담 완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특허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제품 개발과 현장 적용을 연계함으로써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관수 등 현장형 기술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이전 기업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기술이전 성과는 지식재산권 실시료 수입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실시료 수입은 1억 771만 원으로, 2024년 5천860만 원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27건의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을 177개 업체에 이전해 누적 실시료 수입 약 11억 원을 창출했다. 2025년에는 특허 20건, 품종 9품종, 상표 13건 등 총 42건을 28개 업체에 이전했다.

이 가운데 '일사·강우·온도 센서 기반 관수 방법 및 장치'는 각종 센서를 활용해 관수 시기와 관수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특허 기술로, 가뭄 등 이상기상 조건에서도 작물의 안정적 생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술이 전남 노지채소(양파·마늘·대파) 재배면적의 20%에 보급되면 연간 관수 노동비 38억 원을 절감하고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예방해 연간 318억 원의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스마트관수 기술 적용 이후 토양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가뭄에도 생육이 개선됐다"며 "관행농법보다 10a당 수확량이 약 500kg 증가해 소득으로는 140만 원 이상의 증가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관수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연간 150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절감돼 인건비 부담과 작업 강도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기술 보급 확대는 지역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해당 스마트관수 장치는 전국 380개소에 보급됐으며, 기술이전 기업의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한 농기자재 업체는 기술이전 이후 매출이 2023년 2억 원에서 2024년 17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60억 원 달성이 전망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민간 특허 대비 낮은 수준인 특허 기술사용료 기본율 3%를 적용해 농산업체의 기술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허 적용 농기자재 보급 확대로 농가 구입비를 20% 이상 절감해 경영비와 노동력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도록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형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실증과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작물 안정 생산, 지역 기업 성장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7곳 선정

강진 대상·장흥·완도 최우수·나주·담양·곡성·순천 우수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림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림행정 종합평가는 산림재난 대응, 산림자원 육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등 산림 분야 중점 추진 시책의 목표 달성 여부와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림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산림 분야 목표 달성, 주요 시책사업 추진 성과, 적극행정 실적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고 정부합동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강진군이 대상을 차지해 시상금 4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장흥군과 완도군이 선정돼 각 3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됐으며, 우수상은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순천시가 선정돼 각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가 정부합동평가 산림 분야 6개 지표 목표 달성의 기반이 됐으며,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 예방·대응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